

## 1. 서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충격이 큰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많은 희생을 안긴 감염병은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다. 이것은 19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을 감염시켜 5천만 명에서 1억 명가량을 사망하게 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구의 50~60%가 감염되는 집단면역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때와는 다르게 인류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다. 희생된 사람의 숫자로만 본다면 스페인 독감이 코로나19보다 약 10배가 더 많고, 인구비율로 환산한다면 50배나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명사적인 충격의 정도가 역전되는가? 어떤 점에서 제2의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시대를 구분할 만큼 충격이 큰가?

과거 스페인 독감은 독감의 위력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세계대전의 여진으로 여겨졌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충격파에 흡수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코로나19는 온전히 주인공이 되어 그 위력을 유감없이 입증했다.<sup>1)</sup> 전염병이 인류 역사를 흔든 사례는 여럿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역사를 바꾼 우연적 요소로 취급되었다. “질병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오면서 이 세상에 계속되어 온 배경음악과 같은 것”<sup>2)</sup>으로 인식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는 전염병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그것은 단순히 배경음악의 수준이 아니라 전면으로 등장했다.<sup>3)</sup>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어떤 충격을 가했는지 생각해보자. 사람들 사이에 가장 먼저 회자되는 단어가 “뉴노멀”이다. 뉴노멀이란 이전까지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자리 잡은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말은 벤처 투자가 로저 맥너미(Roger McNameee)가 2003년 처음 사용했고, 그후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 ‘핍코’의 최고경영자인 무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발생한 현상을 뉴노멀로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경제가 3% 이상 구

1) 김기봉,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2020년 9월, 109쪽.

2) 윌리엄 H. 맥닐,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허정 역 (과주: 한울, 2009), 28쪽.

3) 김기봉,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109쪽.

준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Normal)이었는데, 그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생겨난 현상을 지적하는 말이다.<sup>4)</sup>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직장뿐 아니라 학교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언택트(untact)가 일반화되었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뉴노멀을 말하듯, 발제자는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강화』 제 2부의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담겨 있는 “뉴노멀”을 팬데믹 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할 작정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기독교 강화”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의 사상서와는 달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 2. 본론

### 1) 작품 소개

키르케고르가 1848년에 저술한 『기독교 강화』(Christelige Taler) 제 2부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Stemninger i Lidelsers Strid)”는 뉴노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전체 4부로 구성된 『기독교 강화』 중에서 이 강화는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쁨”을 다루고 있다. 발제는 키르케고르의 고난을 주제로 한 강화가 기독교 문학의 백미(白眉)라고 생각한다. 이 강화는 고난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있다.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고난당하는 자의 기쁨이 다른 기쁨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르케고르의 작품 중에 고난에 대한 강화가 하나 더 있다. 1847년에 저술한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 제 3부에 실린 “고난의 복음”이다. 이 두 작품은 고난이 주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한 고난당하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의 복음>은 고난을 대부분 “제자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이 강화는 “시간과 영원”의 관점에서 고난을 다룬다.

발제자가 보기에, 이 두 작품은 기존의 기독교적인 생각을 전복시킨다는 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전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뉴노멀”이다.

### 2) 뉴노멀의 의미

뉴노멀이라는 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 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나타날 뉴노멀이 논의되어 왔으나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4) 위의 책, 115쪽.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는 일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로 5G 연결, 사물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기반 분석 및 로봇 솔루션 등의 기술혁신이 더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재택근무 확대와 탈도시화, 전자상거래의 일반화, 미니멀 라이프 추세의 강화, 위생에 대한 관심의 증가, 세계화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사회적 기업의 역할 증대를 꼽고 있다.<sup>5)</sup> 여기에 6가지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다. 다만, 발제자는 영적인 관점에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이렇듯 코로나 사태가 발생시킨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낙타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로 비유될 수 있다. 중세의 문명을 몰락시킨 것은 흑사병이었다. 낙타에 과도한 짐을 싣다가 어느 순간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은 것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낙타 등을 부러지게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낙타 등이 부러진 것은 지푸라기 하나 때문이지만, 그런 사태가 초래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 이전부터 축적된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 확실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담론은 확실히 신문명에 대한 담론이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기술과 융합하여 삶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예배와 기독교적인 모든 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의 논점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누락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과 시간의 개념이다. 시간과 영원의 개념은 정상과 비정상을 전복시키고 모든 가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만다. 따라서 발제자는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원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 영원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것,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을 확보하는 것을 “뉴노멀”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 3) 관점의 전환

영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동안 뉴노멀에 대한 논의는 시간적인 것이고, 시간 안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뉴노멀의 사회, 신문명의 사회에 대한 모든 논의도 영원이 누락된 시간적인 범주에서 뉴노멀에 대한 점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전복은 시도된 적은 없다. 또한 영적으로 이해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전복, 가치의 전환이란 오직 영원의 사유가 도입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뉴노멀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영적인 면에서 뉴노멀이 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복적 사유가 필요하다. 과학분야에서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출판하면서 사회과학분야의 스토리텔러가 되었다. 여기에서 특이점(singularity)이란 물

5)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340>, 이로운넷 “코로나19이후, 뉴노멀시대의 특징 몇 가지,” 2021년 2월 21일자.

리학과 수학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개념적으로는 “기존의 기준이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지점”을 뜻한다. 기술로 한정지을 때는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이라 부를 수 있다.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총체적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을 말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원의 사유에서 생각해 볼 때, 이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설명하자면, “영적 특이점(spiritual singularity)”이 온다고 말해야 한다. 영적 특이점은 시간의 관점에서 사유했던 사고를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순간으로서의 특이점이다. 이것은 순간이고, 관점의 대 전환이다. 바로 이때만 긍정적 의미에서 뉴노멀이 온다.

#### 4) 영적 의미에서의 뉴노멀의 특징

코로나 사태 이후, 뉴노멀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 기독교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뉴노멀이 아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독교를 변화시키기겠다는 모든 논의는 여전히 시간의 범주에서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의미에서 뉴노멀,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닌, 대전환점으로서의 뉴노멀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사유는 필연적이다.

- 위기는 사라지는가?

발제자는 현재 코로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사라질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 전 세계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백신 개발이다. 다시 말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최대 화두다.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모두 시간적인 영역에서 시간에 길들여진 생각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정상과 비정상의 전복이 필요하다. 위기가 없을 때가 정상이고 위기의 때가 비정상이라는 사고는 시간적인 범주에서의 사고다. 하지만 영원의 사고를 일으키자.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적인 모든 세계 속에서 믿는 자의 모든 실존은 위기가 정상이고 위기가 없는 일상은 비정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의 것이고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자의 길은 환난이 정상이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 가서 민주주의를 선포하는 일 이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상이란 무엇인가? 위기가 정상이다.

따라서 영원의 관점에서 위기가 정상이기에 이런 점에서 해석하자면, 마스크는 던져 버릴 수가 없고, 여행도 쉽지 않으며, 위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 이런 영원의 사유를 얻는 것, 이것이 뉴노멀이다. 기독교적인 본질로 사유했을 때, 환난의 길은 가장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그동안 시간에 길들여진 인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는 환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성서 속에서도 환난의 제거를 정당화하는 구절들만 골라서 근거구절로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에서의 사고이고, 이런 점에서 영적 특이점은 올 수 없다. 영적 특이점이 오기 위해, 다시 말해 뉴노멀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영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영원의 관점에서, 환난의 길이 아니라, 환난 자체가 길이다. 이 경우 환난이 사라지면, 길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세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정상이고, 영적으로 이해할 때,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진리 안에 머물지 않았다. 이것이 뉴노멀이다.

- 집단 면역은 가능한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시간의 영역에서 시간적인 모든 것은 집단 면역된 상태가 정상이다.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집단 면역도 불가능하다. 각각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스스로 면역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을 면역력을 확보하는 일,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하지만 이 믿음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요소가 아니다. 이 믿음은 믿는 자 각각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만 가능하다.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이 사회도, 교회도, 스승도, 어떤 사람도 믿음을 더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없다.

무엇이 정상인가? 세계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심지어는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요약하려면 “초연결”일 것이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시대에 인간을 정의하려면 “관계 존재”일 것이다. 혹은 “호모 커넥투스” 곧 연결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연결하고 유일하게 연결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연결한 것이 정상인가? 따라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는 시대가 정상인가? 이것을 뉴노멀로 정의하는 사회가 정상인가,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

영원의 관점에서 정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연결과 단절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은 언제 순수하게 드러나는가? 세계가 혼탁하다. 혼탁한 세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인간은 존재하는가?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공개되는 공간, 그래서 나의 투명한 자기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모든 죄가 낱알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만 자신의 존재가 폭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연애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군가 집에 있으면 혼란스러워 편지를 읽을 수 없어 홀로 읽으려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결은 혼탁한 연결은 아닌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폭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상인가, 자기가 제대로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을 면역학적으로 사유해보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면역력을 확보하는 일인가,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이 정상인가? 이 초연결 사회에서 교회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상인가?

환자가 자신이 가진 질병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외계인인지 사람인지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여러 치료제를 다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키워지는가? 혹은 정확히 병명을 알고 그에 해당되는 단 하나의 약을 쓰는 것이 옳은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가?

따라서 영적인 관점에서 정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단절하는 것으로, 미래 사회가 “초연결”을 정당화 하며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 영적 백신은 가능한가?

영적 의미에서, 백신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하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고의 수단 역시 백신이다. 각국에서 백신을 도입해 백신주사를 맞고 있다. 물론, 영적 관점에서도 영원한 백신 주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백신의 의미란 결국 “위기로부터의 탈출”이다. 다시 말해, 백신을 맞으면 죽지 않는다. 백신은 죽지 않기 위한 도구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영역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죽고 만다. 결국 죽고 마는 것들의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백신은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영원의 생각을 도입하기 위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는 더 치명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우리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백신은 살기 위해 맞는 것인데, 날마다 죽을 때만 살 수 있다면, 백신은 가능한가?

또한 백신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논의했다시피, 영적으로 이해할 때,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위기가 정상이고 위기가 없는 일상은 비정상이다. 따라서 진리로 고난당하지 않는 삶은 비정상적 삶이다. 하지만 위기를 탈출 시킬 수 있는 영적 백신은 가능한가? 물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일종의 백신을 만든 것이다. 고난당하지 않는 기독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다. 발제자는 이것이 일종의 미국발 “변영신학”이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변영신학은 위기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신학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면제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꿈과 망상을 심어준다. 따라서 변영신학은 비정상이다.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백신을 맞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매순간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할 때면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상이고 이런 사유를 갖는 것이 뉴노멀이다.

5) “고난의 싸움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이 작품은 지금까지 제시한 것처럼 전체 7개의 강화가 시간과 영원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시간적인 사유가 비정상이고 영원의 사유가 정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거꾸로 사유한다. 시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간은 자신이 중요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하루, 이틀, 사흘... 등을 세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시간은 영원을 닮으려 한다. 하지만 이 계산법에 의해 절망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 의하면 영원의 사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원으로 불려오면, 70년을 산다 해도, 70년을 고통당한다 해도 “한 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과 비교할 때 없는 시간과 같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1장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마무리 한다.

### 3. 결론

한 번의 고난은 이동, 통과일 뿐이다. 당신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고난이 당신의 인생만큼 길다할지라도,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된다 할지라도(눅2:35), 그것은 겨우 통과에 불과하다. 당신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한다.

영원의 의미에서, 당신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시간에서, 시간의 이해에서, 고난은 끔찍한 것처럼 보인다. 시각적인 착각에 의해, 고난이 마치 당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바로 이것이 시각적 착각이다.

이것은 마치 한 배우가 다른 배우를 죽이는 연기와 같다. 이 연기에서 한 배우가 다른 배우를 정확히 찌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눅21:18)

살해당한 배우가 해를 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 굴에서 나오듯이(단6:10-14), 그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걸어 들어가지만 해를 당하지 않듯이(단3:8-27), 믿는 자의 영혼도 모든 일시적인 고난에 의해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으로 걸어간다. 죽음에 의해 다치지 않는다.

모든 일시적인 고난은 신기루다. 영원의 의미에서 죽음 자체는 어릿광대다! 좀과 동록이 영원의 보물을 소멸할 수 없듯이 이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도둑이 그것을 훔칠 수 없듯이(마6:19-20), 일시적인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눈곱만큼도 영혼에 해를 가할 수 없다.

어떤 병도, 어떤 기근이나 궁핍도, 어떤 추위나 더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멸한다 해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어떤 중상모략도, 어떤 모욕도, 어떤 인격적 공격이나 핍박도, 아무리 흠치고 강탈한다 해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죽음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한 번의 고난은, 영혼에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는 통과이다. 아니, 훨씬 더 영광스럽게도, 이 고난은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통과다. 결과적으로 청결은 통과가 뒤에 남겨 놓은 흔적이다.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이, 영혼은 고난 속에서 깨끗해진다. (말3:3) 그러나 불은 금에서 무엇을 제거하는가? 이것을 제거한다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불은 금 속에 있는 불결한 요소들만 제거하니까. 그렇다면, 금은 불 속에서 무엇을 상실하는가? 이것을 상실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은 불 속에서 모든 비천한 것들만 상실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금은 불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

모든 일시적인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고난은 본질적으로 무기력하다. 고난은 불결한 것만 제거할 뿐이다. 다시 말해, 고난은 청결함을 준다.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